



'시력측정기' (1960년대)

의학 역사도 배우고 현대 미술도 관람하고

50년대 사용됐던 원심분리기, 60년대 해부학 교육용 인체 골격 표본과 시력측정기, 세균배양기 등...

지난해 개관한 전남대 의학박물관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유물들이다.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의학 전문박물관인 전남대 의학박물관(관장 신부안 교수)이 문을 연지 1년을 맞아 지역 작가들을 초대해 인간의 몸을 새롭게 해석하는 전시를 연다.

지난해 8월 개관한 전남대 의학박물관은 인체의 신비와 생명존중의 의미를 가르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특히 의학박물관이 들어선 광주의과대학 의학관 건물은 지니는 의미도 크다. 한국전쟁 중인 1951년 준공된 의학관은 호남 의학교육의 발원지다. 전남대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기도 하다.

개축된 의학관 1층에는 체험전시실과 영상세미나실, 2층에는 상설전시실 2개, 기증유물전시실, 특별전시실인 5·18의학관 등을 갖추고 있다.

전남대 의학박물관에서는 1910년 개원한 광주 자혜의원을 비롯해 1944년 국내에서 4번째 국립대학으로 개교한 전남대 의과대학의 역사 등 한 세기 호남 의료 역사를 한눈에 만날 수 있다.

50년대의 원심분리기, 60년대 시력측정기, 세균배양기 등 인체 구조와 생리 현상 등을 탐구하기 위한 진기한 연구 기자재, 다양한 질병 치료 장비 등이 전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네이처(Nature·1964년)지에 실린 국영중 명예교수의 실험기구 등과 5·18 당시 전남대병원 당직 의사의 진료일지와 회상 등이 눈길을 끈다. 박관현, 박승희 열사의 치료 기록도 포함돼 있다. 60년대 해부학 교육용 동물표본, 해부학 교과서, 실습책 등도 진열돼 있다.

전남대 의학박물관이 첫 기획전을 준비했다.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몸짓 in & out'전은 지난해 개관한 전남대 의학박물관이 1주년을 보내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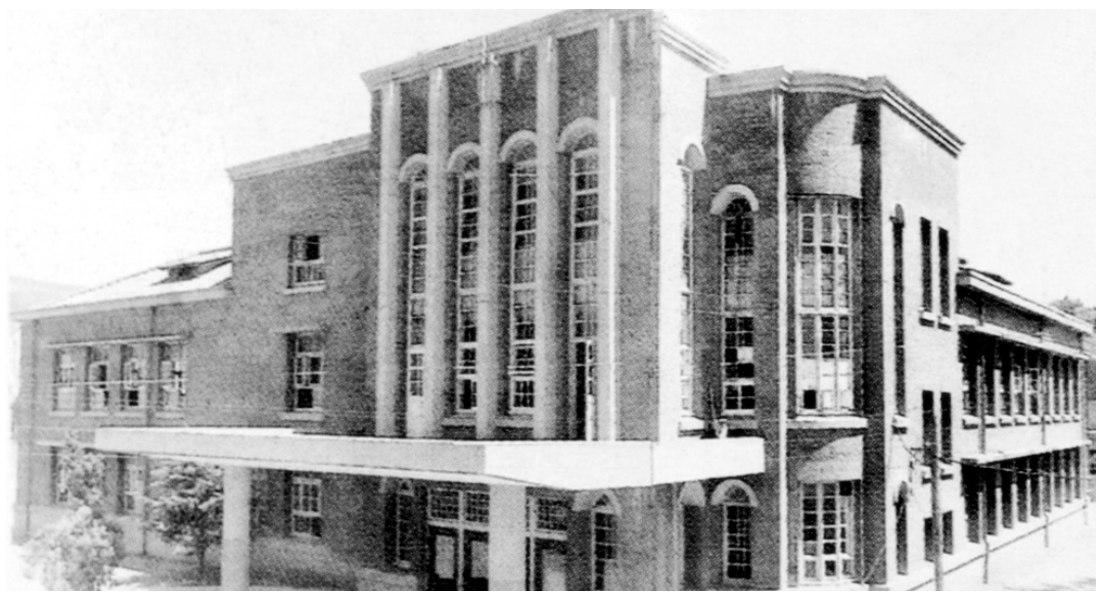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는 광주 출신 작가 임종두, 박수만, 정운학, 진시영, 전현숙, 윤세영씨 등 6명이 초대돼 서양화, 한국화, 조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1층 체험전시실과 2층 5·18 의학

관에 전시된다.

작가들은 '몸짓'이 품고 있는 행위성, 도구성, 형식성, 기호성, 문화성을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표현한다. 의학이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것처럼, 작가들도 인간의 몸이 품고 있는 의미들을 예술과 인문학을 이용해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박수만씨는 인간 신체가 가지고 있는 해학적이고 과장된 표현들을 통해 현대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윤세영씨는 인간이 품고 있는 상처들을 몸짓을 통해 표현한다.

김하경 전남대 의학박물관 학예실장은 "우리의 몸은 과학적인 사실과 인문학적인 의미가 만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 전남대 의학박물관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인간의 몸에 관한 다양한 담론과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20-438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남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을 활용한 '의학박물관'의 1951년 모습.



'세균배양기' (1960년대)



'반인반수'

'반인반수'

송영학 개인전 14일까지

인간과 동물의 경계에선 현대인의 초상을 화폭에 담고 있는 한국화가 송영학씨가 오는 14일까지 수하갤러리에서 '억압된 의식의 해방'전을 연다.

송씨는 현대인의 일상과 내적 관심을 반인반수의 동물을 소재로 화폭에 담은 작품 13점을 선보인다.

반인반수는 동양의 심이지신에서 차용해온 것이다. 불교미술의 영향을 받은 작가는 강렬한 색채와 보색 대비 배색으로 작품들을 구성했다. 강렬한 색채의 향연 속에 엉뚱하고, 코믹하게 표현된 반인반수는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의인화된 동물들을 모티브로 표현한 작업에 나 자신의 삶 그리고 내적인 심리 상태까지 고스란히 담으려고 했다"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보인뿐만 아니라 인간의 혼재된 욕망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의미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송씨는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대상,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어등미술대전 최우수상, 소치 미술대전 신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062-226-8484.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7년만에 복귀한 유인촌 13~14일 해남서 공연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유인촌(사진)씨가 다시 연극 무대로 돌아왔다. 7년만의 귀환이다.

복귀작은 그의 대표 작품으로 꼽히는 음악극 '어느 말의 이야기-홀스토포르'(이하 홀스토포르). 서울 공연장이 아닌 남도 끝 해남에서 공연(13~14일 오후 7시 해남문화회관)을 갖는 것도 눈길을 끈다.

'홀스토포르'는 톨스토이의 중편소설을 연극으로 옮긴 작품으로 1998년 초연 이후 2005년까지 모두 4차례 무대에 올랐다.

극단 광대무변 작품으로 "한 마리 늙은 말의 이야기"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인류보편의 영원

한 문제에 관한 톨스토이의 물음이 담겨져 있다"는 제작진의 설명이다. 작품은 늙고 병들어 있는 초라한 말의 회상에서 출발한다. 말을 통해 중후하게 늙을 수도 있고, 추하게 늙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련하게 늙을 수도 있는 게 '인간'임을 이야기 한다.

뮤지컬 '맘마미아'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이경미(바조쁘리하 역)씨와 '친구' 등에 출연한 영화 배우 서태화(세르홉스키)씨 등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2013 농어촌희망재단 순회공연지원 사업에 선정작으로 KRA한국마사회 기금을 지원받았다. 문의 061-530-5453. /지미기자 mekim@



창업 31주년 K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 약, 흥 삼 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